

제주방언 ‘올레’의 어휘사*

배영환**

〈목 차〉

I. 서론	IV. ‘올레’의 의미 변화
II. 국어사 자료에서의 ‘올레’ 관련 형태와 의미	V. 결론
III. 현대국어 방언에서의 ‘올레’와 ‘올레’의 분포와 의미	참고문헌
	<Abstract>

〈국문요약〉

이 논문은 제주 방언형인 ‘올레’와 관련된 어휘의 형태와 의미 변화를 논의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주방언 ‘올레’에 대응하는 중세국어 형태는 ‘올레’이다. ‘올레’는 『천자문』을 비롯한 여러 문헌에 나타난다. 중세국어 ‘올레’의 본래 의미는 ‘문’이다. 특히 밖에 있는 문[外門]을 뜻하였다. 아울러 중세국어에서 당시에 이미 ‘올레’와 ‘문’의 의미적 유연성이 약화되어 ‘올레’는 또 다른 의미인 ‘거리[巷]’의 의미도 갖게 되었다. 근대국어 자료에서는 ‘올레’의 형태가 좀처럼 확인되지 않는다. 현대국어에서 ‘올레’가 확인되는 곳은 함경도와 평북 등 북한 지역이다. 아울러 제주방언에 ‘올레’로 남아 있다. 함북 방언에서 ‘올레’는 ‘동네’나 ‘마을’, ‘이웃’의 의미를 보인다. 제주방언의 ‘올레’는 ‘올레’에서 ‘르’가 첨가된 형태이다. 그리고 이 지역에서 ‘ㄹ’과 ‘ㄹ’을 구분하지 않고 ‘ㄹ’로 발음하는 현상이 반영된 것이다. ‘올레’는 ‘큰길에서 대문까지의 골목길’이라는 의미이다. 더불어 ‘올레’는 ‘올레 주변이나 그 일대’의 의미를 갖고 있다. 중세국어의 ‘올레’는 기본 의미가 ‘문’, 또는 ‘외문’이었는데, 이러한 의미에서 일차적으로 ‘거리’, 나아가 ‘이웃’이나 ‘마을’, ‘중중’ 등으로 점차 파생되었다. 중세국어에 ‘올레’가 ‘올레문’과 같은 동의 중복 형식이나 합성 형식으로밖에 나타나지 않은 것은 이미 ‘올레’와 ‘문’의 유연성을 잃어 버렸기 때문이다. 이렇게 ‘올레’와 ‘문’의 유연성이 사라진 이유는 한자어 ‘문’의 영향이다. 일음절 한자어라는 특징은 고유어 ‘올레’가 세력을 잃게 되는 결정적인 요인으로

* 이 논문은 2017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7S1A6A3A01079869).

** 제주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부교수.

작용하였다.

핵심어: 올레, 오래, 제주방언, 의미 변화, 함경도 방언, 의미 파생

I. 서론

본고는 제주방언형으로 알려진 ‘올레’와 관련된 형태를 역사적으로 살펴보고, 이들의 방언 분화형과 의미 변화 등을 고찰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올레’의 이전 형태로부터 현대국어의 제 방언에 나타나는 형태들을 살펴보고 어휘의 형태 변화와 의미의 변화 과정을 추적해 보려는 시도이다.

흔히 어휘는 단어들의 총체라고 정의된다. 단어는 하나하나가 독립된 개체이지만 그것들은 서로 연관을 맺고 있다. 이러한 어휘는 시대에 따라 그들 관계에 변화를 가져오는데, 어휘의 변화 과정을 연구하는 것이 어휘사의 주요 내용이다. 그러므로 어휘사 연구의 중심 과제는 어휘 항목의 변동, 즉 어휘를 구성하는 단어들의 생성과 소멸이 언제 어떻게 일어났는가를 확인하고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설명하는 데 있다.¹⁾

그러나 국어학 연구에서 음운사나 문법사에 비해 어휘사 연구는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어휘사 연구가 더디게 이루어진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이유는 연구 대상의 문제이다. 연구 대상인 어휘가 단어의 집합이기 때문에 범위가 지나치게 광대하다는 사실이다. 즉, 음운 체계나 문법 체계에 비해 어휘 체계는 범위의 끝을 알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하다. 그러므로 어휘에 대한 연구는 출발부터 쉽지 않다. 또 다른 이유는 음운사나 문법사에 비해 어휘사 연구에 대한 방법론이 발달되지 않은 데도 있다. 즉, 음운사나 문법사는 구조주의 이론에 입각한 ‘체계’를 중심으로 하는 방법론이 대두되었지만 어휘사 연구는 거기에 적절한 연구 방법론이 마련되지 못했다. 다행히도 최근에 어휘사 연구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방법론 또한 다양하게 시도되고 있다. 특히 특정 단어의 어원을 분석하고 그와 관련

1) 이기문, 『국어 어휘사 연구』, 동아출판사, 1991, 25면.

된 어휘의 통시적 변화 과정과 방언적 분포를 살펴보려는 논의 등이 있었다.²⁾

한편, 최근 제주에는 걷기 운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올레’에 대한 관심 또한 폭발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올레’는 본래 ‘사람이나 차가 많이 다니는 큰길에서 집으로 드나들기 위한 긴 길목’으로 제주 민가만이 갖는 독특한 공간이었다. 제주 올레는 마을은 물론, 바다나 오름까지 제주를 하나의 끈으로 연결한다. 이 올레가 제주의 관광 명소로 개발되면서 널리 알려지게 되었는데, 현재 올레는 2013년 3월까지 21코스, 번외 코스 5개를 포함하여 총 26코스가 개장되었다.³⁾ 앞으로 올레의 코스는 아마도 계속 확대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런데 제주의 ‘올레’는 ‘올레’ 단독형으로 쓰일 뿐만 아니라 ‘올레길’이나 ‘올렛길’ 등으로도 쓰이는데, 이는 ‘올레’와 ‘길’ 또는 ‘길’의 결합형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올레’는 여타 방언에서는 흔히 볼 수 없는 형태라는 점에서 흥미롭다. 그러나 이렇게 높은 관심에도 불구하고 ‘올레’에 대한 국어학적 논의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므로 제주 방언 ‘올레’와 관련된 어휘를 한 자리에 모아 놓고 이들의 의미와 형태 변화 등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제주방언형인 ‘올레’의 이전 시기 형태를 찾아보고 ‘올레’의 형성 과정과 의미 변화 과정을 문헌 자료와 방언 자료를 중심으로 고찰해 보기로 한다. 즉 ‘올레’의 이전 시기 형태인 ‘오레’를 중심으로 그것의 의미를 살펴보고 이것이 어떻게 방언으로 변화되었는지, 아울러 제주방언의 ‘올레’는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살펴보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중세국어 문헌 자료와 현대국어의 각 방언 자료집 등을 통해 ‘올레’ 관련 어형들을 고찰해 보고 이들의 의미 변화 과정을 논의하고자 한다.

2) 최근에 어휘사에 대한 논의가 폭넓게 이루어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이병근(2004)를 들 수 있다. 이병근, 『어휘사』, 태학사, 2004.

3) 2007년 시작된 올레는 제주도의 둘레를 따라 만들어진 정규 코스 총 348.6km에 이르며, 섬 등의 번외 코스를 포함한 거리는 421.1km에 이른다고 한다.

II. 국어사 자료에서의 ‘올레’ 관련 형태와 의미

제주방언 ‘올레’에 대한 직접적인 연구는 지금까지 거의 없었다. 다만, 다른 논의를 하는 가운데 제주방언 ‘올레’에 대해 언급한 경우가 있을 뿐이다. 곽충구(1996)은 문헌 자료와 방언 자료를 통해 ‘오래’와 ‘올레’의 변화 과정을 언급하였는데⁴⁾, 현재까지 ‘올레’에 대한 논의 가운데 가장 그럴듯한 논의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여러 논의를 하는 가운데 이 어형에 대해 설명한 것은 다소 아쉬운 점으로 남는다. 오창명(2014)는 제주방언의 어휘론적인 과제를 언급하면서 ‘올레’에 대한 논의도 제시하고 있다.⁵⁾ 오창명(2014:336)에서는 제주방언의 올레에 대해 ‘대문 주변이나 대문으로 들어오는 길 일대를 모두 일컫는 말’로 보았다.⁶⁾ 그런데 이들 논의는 ‘올레’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라고 보기는 어렵다.

제주방언 ‘올레’에 대응하는 표준어는 ‘오래’이다. ‘오래’는 『표준국어대사전』에 다음과 같이 기술되어 있다.

- (1) 가. 한동네의 몇 집이 한 골목이나 한 이웃으로 되어 사는 구역 안.
나. 거리에서 대문으로 통하는 좁은 길.

(1)에서 『표준국어대사전』에는 ‘오래’에 대해 두 가지 뜻을 제시하고 있다. 하나는 ‘이웃의 구역 안’이라는 의미이고 다른 하나는 ‘거리에서 대문으로 통하는 좁은 길’이라는 의미이다. 두 가지 의미 가운데 어느 것이 본래의 의미인지 분명하지는 않지만 사전의 뜻풀이 순서로 볼 때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대체로 ‘이웃의 구역 안’을 좀 더 본질적인 의미에 가까운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오래’는 사전에만 제시되어 있고, 실제 방언에서 확인되는 예는 많지 않다.

그런데 표준어의 ‘오래’와 제주방언 ‘올레’와 관련한 이른 시기 어형은 중세국어

4) 곽충구, 「국어사 연구와 국어 방언」, 『이기문교수정년퇴임기념논총』, 신구문화사, 1996, 56-59면.

5) 오창명, 「제주방언 어휘론 연구의 현황과 과제」, 『제주방언 연구의 어제와 내일』, 제주발전연구원, 2014, 336면.

6) 이 밖에 ‘올레길’이라는 제목의 기사도 제주방언의 ‘올레길’의 ‘올레’에 대해 역사적으로 설명하고 있어 참고할 만하다. 올레길, ‘조항범 교수의 어원 이야기’, 문화일보, 2018년 4월 13일 기사.

자료에 나타나는 ‘오래’이다. ‘오래’는 16세기의 자료에서 확인된다.

- (2) 가. 門 오래 문<광주천자문,027a>
나. 오래 문 門<백련초해_東,002a>
다. 門 문 문 俗呼-子在外爲門 國語 오래문<훈몽자회 觀山本, 中 4a>

- (3) 가. 문 오래며[LHH] 과실 남글 반드시 방정히 줄혀게 흐고(門巷果木必方列)<번역소학,09,096a>
나. 몸 닷골 일흐며 집 다스릴 일흐며 오래플[LHH] 쓰서르물 게을이 호미오 (怠惰不修事業 及家事不治 門庭不潔者)<여씨향약언해,009a>
다. 문 오래며[LHH] 과실 남글 반드시 방정히 버텨게 하아(門巷果木必方列)<소학언해,06,088b>

위의 (2)는 중세국어의 자석류 문헌에 나타나는 ‘오래’의 예이다. (2가)의 광주판 『천자문』에서 ‘門’에 대한 훈이 ‘오래’였음을 보여 준다. 또, 『백련초해』에서도 ‘門’에 대한 훈이 ‘오래’로 나타나는데, 이러한 예에서 ‘門’에 대한 전통적인 훈이 ‘오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같은 ‘門’에 대해 『훈몽자회』에서는 훈이 ‘문’으로 바뀌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2다)의 『훈몽자회』의 설명에서 그 당시 일반적인 훈은 ‘문’이었지만 바깥문[外門]에 해당되는 우리말에 ‘오래문’이 있었다는 부가적인 설명을 볼 수 있다.

한편, (3)은 중세국어의 간본 자료에 나타나는 ‘오래’의 예인데, 여기에서는 ‘오래’가 꼭 ‘문’의 의미로만 쓰이지 않았다. (3가)는 『번역소학』의 예이다. 여기에서 ‘오래’가 확인되는데, 국어사 자료 가운데 가장 이른 시기 문헌 자료에서 확인되는 ‘오래’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이 자료에서 ‘문 오래’로 나타나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오래’의 성조가 [평거]이면서 ‘문 오래’는 원문의 ‘門巷’에 대응한다. 그러므로 여기서의 ‘오래’는 ‘門’에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巷’에 해당되는데, ‘문 오래’라는 구성에서 이때의 ‘巷’, 즉 ‘거리’도 ‘문’에 인접한 ‘巷’으로 볼 수 있다. ‘문 오래’는 (3다)의 『소학언해』에서도 확인되는데, 이때의 ‘문 오래’도 역시 원문의 ‘門巷’을 언해한 것이다. 『소학언해』는 『번역소학』보다는 원문을 번역하는데 좀 더 직

역에 가까운 모습을 보인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오래’가 ‘巷’에 대응한다는 사실을 좀 더 분명히 알 수 있다. 한편 (3나)는 『여씨향약언해』의 예인데, 여기에서 ‘오래뜰’이 확인된다. ‘오래뜰’은 원문의 ‘門庭’을 언해한 것이다. 여기서의 ‘오래뜰’은 ‘오래’와 ‘뜰’의 결합으로 볼 수 있는데, ‘오래’는 ‘門’에 ‘뜰’은 ‘庭’에 대응한다고 할 수 있다.⁷⁾ 결국 중세국어의 문헌 자료에서는 ‘오래’가 ‘문’의 의미와 ‘거리’[巷]의 의미 두 가지가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오래’가 ‘대문’의 의미로 쓰인 예로 <계축일기>의 다음과 같은 예문을 제시하고 있다.

(4) 오래 좁가 너허시나 궁둥의 괴특 거룩흔 상셔의 일이 만흐니<계축, 하:47>

위의 예는 <계축일기>의 일부분이다. 여기서의 ‘오래’를 ‘문’의 의미로 쓰인 것인지, 아니면 ‘오랫동안’의 의미로 쓰인 것인지가 문제로 대두된다. 그런데 여기서의 ‘오래’는 ‘대문’의 예로 보기는 어렵고 ‘오랫동안’의 의미로 보아야 한다. 위의 예는 그 앞에 ‘계희년 삼월 십삼일 삼경의 문을 여니라’에 이어지는 내용인데, 바로 앞 부분에 ‘문’이 이미 제시되어 있다. 아울러 문맥상 ‘오래’는 ‘오랫동안’의 의미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⁸⁾

중세국어에 나타나던 ‘오래’는 국어사 자료에서는 더 이상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근대국어의 일부 개인 문집에서 ‘오래’를 찾아볼 수 있다. 즉, 다음과 같은 자료에서도 ‘오래’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다.⁹⁾

(5) 가. 又以烏羅釋門字。全州兒童指客舍大門謂之烏羅也<頤齋遺藁卷之二 十五 雜著:23b>

나. 門曰烏喇<耳溪集, 22:41b, 北塞記略 孔州風土記>

7) ‘오래뜰’은 『표준국어대사전』에서도 표제어로 올라 있다.

8) 조재현 옮김(2003)에서도 ‘오랫동안’으로 해석하였다. 조재현 옮김, 『계축일기』, 서해문집, 2003, 178면.

9) 아래의 예는 곽충구(1996)에서 제시된 예를 필자가 재구성하였다.

위의 (5)는 문집 자료에 나타나는 ‘올래’에 해당되는 기술이다. (5가)는 『이재유고』¹⁰⁾에 나타난 예인데, 『이재유고』는 19세기 자료로 알려졌다. (5가)에서 ‘올라’가 ‘門’의 훈이고, 전주 아동이 객사의 ‘大門’을 ‘烏羅’라고 한다는 기술을 볼 수 있다. 이때의 ‘烏羅’는 중세국어의 ‘올래’에 대응하는데, ‘올라’는 제2음절 ‘래’의 ‘ㄹ’가 하향이중모음 [ay]이고, 아울러 반모음 ‘y’가 반영되지 않고 [a]만 표기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기술에서 전주 지역에서는 ‘올라’가 실제 대문을 지시했음을 보여 준다. 그런데 황윤석이 이러한 기술을 한 것은 그 당시에 ‘올래’의 지시 의미가 ‘문’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사실을 흥미롭게 생각하여 이러한 기술을 남겼다고 할 수 있다.¹¹⁾ 왜냐하면 ‘올래’의 의미가 ‘문’이었다면 굳이 이러한 기술을 남길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즉, 19세기에는 ‘올래’와 ‘문’의 의미 관계가 일부 방언에서나 나타날 만큼 일반적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 준다. 한편 (5나)의 자료에서도 ‘門’과 ‘올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이계집』¹²⁾에 나타나는 예인데, 여기에서도 ‘올라’를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이 자료는 함경도 지역의 방언을 보여 주는데 이 지역에서 ‘올라’가 있었음을 보여 준다.¹³⁾

그런데 여기에서 ‘올래’의 본래 의미가 무엇인지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 위의 중세국어 자료를 볼 때는 ‘올래’에 두 가지 의미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는 ‘門’의 의미이고 다른 하나는 ‘巷’의 의미이다. 이 가운데 어느 것이 본래의 의미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데 ‘올래’의 본래 의미는 ‘문’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

10) 조선 후기의 학자 황윤석(黃胤錫)의 시문집. 1829년(순조 29) 황윤석의 손자 황수경(黃秀瓊)이 편집·간행하였다. 황윤석(1729~1791)은 전북 고창에서 태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11) 이 당시 ‘올래’가 중앙어나 고창 지역에서 거의 사용되지 않는 단어였기 때문에 이러한 기술이 있을 가능성도 있다.

12) 조선 후기의 문신·학자 홍양호(洪良浩)의 시문집. 1843년(헌종 9)에 홍양호의 손자 홍경모(洪敬謨)가 편집·간행하였다.

13) 이는 『北塞記略』 첫머리에 실려 있다. 『북새기략』은 홍양호가 경흥부사의 직분을 역임하면서 얻은 생생한 경험을 토대로 하여 이 지방의 풍물을 적은 것으로, 당대의 동북방 국경지대 사적을 밝힌 귀중한 문헌이다. 모두 2,084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행정구역·군역제도·장례·식생활·가옥구조·생활용품·농기구·의복 등 일반풍습과 나무·열매·과일·꽃·곡물·종이 등, 이 지역의 토산물에 이르기까지 특기할 사항이 자세하게 적혀 있다. 이 책의 내용 중에는 이 지역에서만 쓰이는 군사 및 일반사회의 특이한 낱말과 이 지방의 방언이 소개되어 있어 국어 어휘 자료로 가치를 지닌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이다. 왜냐하면 『천자문』을 비롯한 한자의 훈에 거의 ‘오래 門’으로 제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한자의 훈은 어휘 중에서 가장 보수적인 부분이고, 이것의 성립은 고대국어 시기라고 할 수 있다.¹⁴⁾ 그러므로 한자의 훈은 이전 시기의 어휘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오래’의 본래 의미는 ‘문’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천자문』의 훈의 모습을 보면 확연하게 알 수 있다.

표-1. 천자문에서의 門의 훈의 양상

구분	광주	석봉	칠장사	영장사	송광사	갑오	장서각
門(626)	오래문	오래문	오래문	오래문	오래문	오래문	문문

위의 표는 역대 천자문에 나타난 ‘門’의 훈과 음을 나타낸 것이다. 광주 천자문, 석봉 천자문은 물론 후대의 여러 천자문 자료에서 일괄적으로 ‘오래’로 나타난다. 즉, 중세국어 시기나 근대국어 시기나 한결같이 훈이 ‘오래’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즉, 『천자문』은 해당 한자의 훈과 음을 함께 구송하여 암기하기 때문에 한 번 훈이 정해지면 그대로 읽히게 된다. 그리고 그 뜻이 바뀌어 그 의미를 알기 어렵다고 해도 계속 음과 훈은 하나의 단위로 그대로 이어진다. 즉, 근대국어에 들어서 ‘오래’가 널리 쓰이는 단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훈은 습관적으로 그대로 ‘오래’로 남아 있는 것이다.

결국 위의 문헌 자료를 통해 볼 때 중세국어 ‘오래’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6) 중세국어의 ‘오래’

중세국어 ‘오래’는 [평거]의 성조를 가지고 있다.

‘오래’의 본래 의미는 ‘문’이다. 특히 밖에 있는 문[外門]을 뜻하였다.

중세국어에서 당시에 ‘오래’와 ‘문’의 의미적 유연성이 약화되었다. 이에 따라 ‘오래’는 또 다른 의미인 ‘거리’[巷]의 의미도 갖게 되었다.

14) 이기문, 『국어어휘사연구』, 동아출판사, 1991, 262면.

Ⅲ. 현대국어 방언에서의 ‘오래’와 ‘올레’의 분포와 의미

3.1. 현대국어에서의 ‘오래’의 분포와 의미

초기 현대국어에서 중세국어의 ‘오래’의 흔적이 남아 있는 자료는 『조선어사전』(1938)이다. 『조선어사전』에는 ‘오래’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 (7) 가. 오래: ‘마을’의 사투리
- 나. 오래뜰: 대문 앞에 있는 마당

위의 예에서 『조선어사전』에서는 ‘오래’를 ‘마을’의 사투리로 제시하고 있다. 아울러 ‘오래뜰’도 제시하고 있는데 ‘오래뜰’은 ‘대문 앞에 있는 마당’이라고 하였다. ‘오래’와 ‘오래뜰’에 대해서는 중세국어에서도 이미 존재하던 어형으로서 형태상으로는 큰 차이가 없다. 그러나 ‘오래’를 ‘마을’의 의미로 설명한 것은 특이하다고 할 수 있다. 적어도 중세국어에서는 ‘오래’가 ‘마을’의 의미로 사용된 예가 확인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은 ‘오래’가 중세국어의 ‘門’과 ‘巷’의 두 가지 의미에서 근대국어를 거치면서 새롭게 ‘마을’의 의미로 변화하였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오래’의 뜻풀이를 ‘마을’이라고 하면서 사투리로 설명한 것은 방언에서 이러한 용법이 있었음을 시사한다.

그런데 이 시기의 ‘오래’에는 방언에 따라 다양한 의미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을 처음 언급한 권덕규(1937:557)의 다음과 같은 기술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¹⁵⁾

- (8) ‘오래’는 門이나 이웃 마을이나 宗中을 이름이니, 『훈몽자회』에 門의 訓을 오래라 하고 지금 畿내에서도 문을 오래라 하며, 近畿地方에서도 집 근처, 곧 터서리를 오래뜰이라 하며 함경도 지방에서는 이웃마을을 오래라 하며, 온 宗中을 오래라 하고 어떤 지방에서는 門을 오래라 하여 단단히 읽기도 한다.

15) 권덕규, 「버리다 만 산고」, 『한글』 7-2, 한글학회, 1937, 557면.

위의 예에서 ‘오래’가 일부 지역에서 ‘집 근처’, ‘이웃마을’, 그리고 ‘종중’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일부 지역에서는 ‘올래’를 ‘문’이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므로 20세기 초기에 ‘오래’는 방언에 따라 ‘집 근처’나 ‘이웃마을’ 또는 ‘종중’의 의미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기술 내용은 오구라 신페이(2009)의 방언 조사의 결과를 통해 볼 때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다.

(9) 대지 저택 屋敷

오래[o-re]: (황해) 신계, 곡산, (함북) 성진, 길주, 경성, 나남, 청진, 부령, 무산, 회령, 중성, 경원, 경흥, (평북) 박천, 영변, 희천, 구성, 강계, 자성, 후창

우래[u-re]: (함북) 무산, 경원

(10) 근처, 부근(近所, 隣近)

오래[o-re]: (황해) 신계, 곡산, (함남) 신고산, 안변, 덕원, 문천, 고원, 영흥, 정평, 함흥, 오로, 신흥, 홍원, 북청, 이원, 단천, 풍산, 갑산, 혜산, (함북) 성진, 길주, 명천, 경성, 나남, 청진, 부령, 회령, 중성, 경원, 경흥, 웅기, (평북) 박천, 영변, 희천, 구성, 강계, 자성, 후창

(11) 이웃(隣)

올래[ol-le] (제주) 제주, 성산, 서귀, 대정

위의 예는 오구라 신페이(2009)에서 제시된 ‘오래’ 관련 어휘의 방언 분포이다.¹⁶⁾ 위의 예에서 중세국어의 ‘오래’를 이 당시 ‘오래’로 남아 있는 지역과 ‘우래’로 실현되는 지역, 아울러 ‘올래’로 실현되는 지역으로 나눌 수 있다. 그 가운데 ‘오래’로 실현되는 지역이 압도적인데, 대체로 북한의 함북과 함남, 그리고 평북, 그리고 황해도 일부 지역에서 실현된다고 할 수 있다. 또, (11)을 통해 볼 때 ‘올래’로 실현되는 지역은 제주 방언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서울을 비롯한 중부방언에서는 ‘오래’나 그와 관련된 어형을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이 시기에 중부방언에서는

16) 오구라 신페이(2009)는 1911년부터 1933년까지 대체로 20여 년간 한국의 각 지방을 직접 조사한 방언 자료집으로 볼 수 있다. 현대적 관점에서 보면 자료의 신뢰성 여부에 다소간 문제가 있지만 매우 중요한 자료로 인정된다.

‘올래’와 관련된 형태는 거의 사용되지 않았다고 추정할 수 있다. 아울러, ‘올래’나 ‘올래’가 나타나는 곳은 중앙 방언의 관점에서 보면 모두 거리가 먼 지역이다.

위의 자료를 살펴볼 때, 20세기 초기의 ‘올래’는 중세국어의 ‘올래’와는 의미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 가운데 북한 지역에서 ‘올래’의 의미는 ‘대지 저택’, ‘근처’나 ‘부근’ 등으로 볼 수 있고, 제주 지역에서는 ‘올래’가 ‘이웃’의 의미를 띠다고 할 수 있다.¹⁷⁾ 오구라 신페이(2009)의 자료만을 볼 때는 ‘올래’에 중세국어에 보이던 ‘문’이나 ‘거리’의 의미를 찾아볼 수 없게 되어 있다. 그런데 이러한 사정은 김태균 편(1986:383)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¹⁸⁾

(12) 가. 올래: 한 동네의 몇 집이 한 골목으로 또는 한 이웃으로 되어 사는 구역안.

나. 동네: 성진, 길주, 명천, 부령, 경원, 온성, 종성

다. 마을: 학성

라. 우래: 무산

마. 이웃: 학성

위의 예는 『함북방언사전』의 내용이다.¹⁹⁾ 위의 예에서 함북지방에서 ‘올래’가 역시 확인된다. 이때의 의미는 ‘동네’나 ‘마을’, 또는 ‘이웃’의 의미를 보인다. 아울러, 무산이나 학성 지역에서는 ‘우래’의 형태로 나타난다. 다만, 의미상으로는 오구라 신페이(2009)의 내용과는 약간의 차이가 존재한다. 즉, 오구라 신페이(2009)에서는 ‘올래’를 ‘대지’나 ‘저택’, 또는 ‘근처’나 ‘부근’의 의미를 보인다고 기술한 반면, 이 자료에서는 ‘동네’나 ‘마을’ 또는 ‘이웃’의 의미를 보인다고 기술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차이는 몇 십 년 동안 이 지역에서 의미가 변화되었다고 설명하기보다는 조사의 차이로 인해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일인 학자인 오구라 신페이가 한국어에 능통하지 못했기 때문에 조사 과정에서 오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김태균(1986)의 함북방언의 조사 내용을 받아들인다면, 함북방언에서는 ‘올래’의 의미가 ‘동네’나 ‘마을’ 또는 ‘이웃’의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17) 다만, 현재 제주방언에서는 ‘올래’가 ‘이웃’의 의미를 갖는 예를 찾기 쉽지 않다.

18) 김태균 편저, 『함북방언사전』, 경기대학교 출판국, 1986, 383면.

19) 이 사전은 실향민들을 대상으로 1983년에 조사된 내용을 중심으로 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함경도 지역을 제외하고 평안도 지역에서는 최근에 간행된 사전에 ‘오래’에 대한 표제어가 없다는 점이 흥미롭다. 가령, 김이협(1981)이나 김영배(1997) 등에서 ‘오래’가 표제어로 제시되어 있지 않거나, 오구라 신편(2009)의 조사 내용을 그대로 제시하고 있다. 김이협(1981)에서는 ‘오래’에 대한 예를 아예 제시하지 않고 있다. 아울러 김영배(1997)에서는 ‘오래’의 예를 제시하기는 했지만 오구라 신편이 조사한 예만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은 이 지역에서 이미 ‘오래’가 자주 쓰이는 형태가 아니라는 사실을 의미한다. 즉, 이 지역에서도 중부방언에서처럼 ‘오래’가 점차 사전에서나 존재하는 형태로 변화해 간다는 사실이다.

그런데 중부 방언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 보이는 ‘오래’나 ‘올레’ 대신에 중부 방언의 일부 지역어에는 ‘오래’의 흔적으로 볼 만한 형태가 확인된다.

(13) 오랍돌이, 오랍또리: ‘이웃’의 방언(강원).

위의 예는 <한민족언어 정보화 통합 검색 시스템>에 제시되어 있는 내용이다. 여기에서 ‘오랍돌이’와 ‘오랍또리’의 형태로 나타나고 이것의 의미를 ‘이웃’으로 설명하고 있다. 또, 『표준국어대사전』에서도 ‘오랍돌이’를 표제어로 제시하면서 ‘이웃’의 의미를 갖는 강원도의 방언형으로 설명하고 있다. 아울러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오랍돌이’의 내적 구성을 ‘오랍-돌이’로 표시하여 단일어가 아님을 보여 준다. 그런데 ‘오랍돌이’는 중세국어의 ‘오래뜰’[門庭]에 소급하는 형태로 볼 수 있다. 즉, ‘오래’와 ‘뜰’의 결합에서 후행 요소인 ‘뜰’의 ‘ㅂ’이 선행 요소인 ‘오래’의 종성에 화석처럼 남아 있는 것이다. 아울러, 중세국어의 ‘오래’의 후행 음절의 핵모음 ‘ㅈ’가 하향 이중모음이었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는 ‘오랍또리’로 남아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마지막 음절의 ‘-이’는 접미사의 형태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추정은 김인기 편(2004)의 다음과 같은 예를 통해서도 타당한 것으로 볼 수 있다.²⁰⁾

(14) 오래뜰——오랍더리. 오랍들

운제나 에탄 그집 둘러친 오랍들에 복상[복사]꽃이 지천으루 흐드러져 뻗는데,

20) 김인기 편, 『강릉방언총람』, 한림출판사, 2004, 1078면.

봄은 오가구 해두 어릴 저 종곱지할[소꿨놀이하] 저 쉬하느[오쭈누는] 내 고치르고
개 꺾어 유심히 보든 영옥이는 등 늠어[넘어] 영깁이골에 문행 그보니 세월만 가네.

위의 예는 『강릉방언사전』에 제시되어 있는 표제어와 예문이다. 위의 예에서 강릉방언에서 ‘오랍들’ 또는 ‘오랍더리’ 등이 나타나는데, 이는 ‘오래뜰’의 의미로 설명하고 있다. 여기서의 ‘오래뜰’은 중세국어의 ‘오래뜰’의 후대형으로 ‘門庭’의 의미를 갖는다. 또, 위의 예에서 ‘오랍들’은 선행어 ‘둘러친’의 수식을 받는 것으로 보아 표준어의 ‘오래뜰’이 분명하다. 즉, 여기서의 ‘오랍들’은 ‘대문이나 중문 안에 있는 뜰’의 의미로 쓰이고 있다. 그러므로 여기서의 예는 (13)에 제시된 ‘오랍돌이’, ‘오랍또리’와는 형태상 큰 차이가 없지만 의미상 ‘이웃’과 ‘오래뜰’의 차이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의미 문제는 차치하고, 위의 예를 통해 강원도 방언에 ‘오랍돌이’나 ‘오랍또리’, 또는 ‘오랍더리’ 등이 존재하는데 이는 중세국어의 ‘오래뜰’의 후대형으로 볼 수 있다. 아울러, ‘오랍돌이’류는 ‘이웃’이라는 의미와 ‘門庭’의 의미 두 가지로 쓰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결국 단독형이 아닌 합성어의 예이긴 하지만 강원도 방언에서도 중세국어의 ‘오래’의 흔적이 남아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중부방언에서 유일하게 ‘오래’의 흔적이 남아 있는 형태로 볼 수 있다.

3.2. 제주방언의 ‘올레’의 의미

제주 방언의 ‘올레’는 단독형으로 주로 쓰인다. ‘올레’는 대체로 ‘한길’ 또는 ‘거릿길’로 불리는 큰길에서 개인의 주거 공간으로 진입하기 위한 ‘골목길’이다.²¹⁾ 이러한 제주의 ‘올레길’이 본격적으로 널리 알려진 것은 2007년이라고 한다. 처음 올레길을 개발하면서 스페인 산티아고 순례길을 본떴다고 하는데, 제주의 올레길은 2007년 성산읍 시흥초-광치기 해변을 1코스로 시작하여 현재는 26개 올레길 코스가 완성되었다.²²⁾ 현재까지 조성된 올레길은 다음과 같다.²³⁾

21) 이용규 외, 제주 올레와 올렛담의 유형적 특성에 관한 연구-무근성 지역을 중심으로-, 『한국농촌건축학회논문집』 제19권 3호(통권 66호), 한국농촌건축학회, 2017, 9면.

22) 제주 올레의 서명숙 이사장이 스페인의 순례길을 걷다가 영감을 얻어 처음 시작되었다고 한다. 스페인 산티아고에서 3개월에 걸친 걷기 순례를 하면서 제주도에도 이러한 길을 만들면 많은 이

것에서 ‘오래’가 ‘올레’로 변화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²⁶⁾ 이러한 양상은 용언에서도 확인되는바, ‘덜럽-’, ‘불럽-’에서 그 예를 볼 수 있다.²⁷⁾ 그러므로 ‘오래>올레’의 변화는 이 방언 특유의 첨가 현상과 관련이 있다.

한편, ‘올레’가 ‘올레’로 변화한 것은 이 방언에서의 음운변화와 관련이 있다. 이 방언에서는 ‘ㄱ’와 ‘ㄲ’가 중화되어 ‘ㄱ’로 실현되는 경향이 강하다.²⁸⁾ 특히 비어두의 경우에는 ‘ㄲ’를 ‘ㄱ’로 발음하는 경향이 더 강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올레’ 역시 발음상으로는 ‘올레’로 발음되기 때문에 ‘올레’로 정착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제주방언의 ‘올레’는 그 의미에서 육지의 다른 방언과는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제주방언의 여러 사전에서 제시한 ‘올레’의 뜻풀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2. 사전에서의 ‘올레’의 뜻풀이

사전	표제어	뜻풀이	기타
석주명(1947:40)	올레, 올레문	집으로 들어가는 길. 오래문문. 오래문(門字)	
박용후(1988:32)	올레(ollae)	오래(門). 집으로 들어오는 길	
현평효(1961:214), (1961:517)	olle/올레, 올렛문	거릿길 이쪽에서 대문까지의 집으로 드나드는 아주 좁은 골 목 비슷한 길. 거릿길에서 집으로 들어오는 길목 이쪽에 세운 대문.	
송상조(2007:518)	올레.올레	큰길에서 집으로 드나드는 골 목길. 오래.	
제주특별자치도 (2009)	올레, 올렛문	거릿길 쪽에서 대문까지의, 집 으로 드나드는 아주 좁은 골목 비슷한 길 (고) 오래. 거리에서 집으로 들어오는 길 목 안쪽에 세운 대문.	하르방은 올레에 나오란 보 래단, 이상하다고 생각하 여.(할아버지는 ‘올레’에 나 와서 보다가 이상하다고 생 각해서)

25) ‘노래’나 ‘모래’는 중세국어에서는 ‘놀애’나 ‘몰애’로 나타나던 것이므로 엄격하게 말하면 ‘오래’와 동일한 환경이라고 말하기 어렵다. 다만, 이들이 ‘노래’나 ‘모래’로 변화되므로 여기서는 함께 묶어 논의하기로 한다.

26) 제주 속담에는 “궂인 올리 벱딱흔난 현 올리도 퍼떡흔다”(온전한 오리 퍼떡이니, 낡은 오리도 퍼떡인다)가 있는데, 여기서 ‘올리’는 오리를 말한다.

27) 이뿐만 아니라 제주방언에서는 ‘월료일’, ‘결론[結婚]’ 등과 같이 합성어나 한자어 사이에서 선행음 ‘ㄹ’의 중복 현상도 확인된다.

28) 고재환, 『제주어개론(상)』, 보고사, 2011, 59면.

위의 표에서 제주방언의 ‘올레’에 대해 그 표기를 ‘올래’로 한 경우와 ‘올레’로 한 경우가 있는데, 대체로 초창기에는 ‘올래’가 일반적이었던 반면 최근에는 ‘올레’로 단일화되어 가는 경향을 보인다. 특히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간행한 사전에는 ‘올레’만 표제어로 올라 있다. 그리고 그 뜻풀이도 거의 모두 ‘길’로 끝맺고 있어 ‘올레’가 ‘길의 일종’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런데 현평효(1961:517)와 제주특별자치도(2009)에서 ‘올렛문’이 표제어로 있고, 이것을 ‘거릿길에서 집으로 들어오는 길목 이쪽에 세운 대문’으로 설명하였다. 이때의 ‘올렛문’은 ‘올레’와 ‘문’의 결합으로 본다면 ‘올레’를 ‘거릿길에서 대문까지의 거리’라고 보아도 크게 문제가 없을 것이다.²⁹⁾ 그러므로 현재까지의 제주방언 사전에서의 ‘올레’의 의미는 그 ‘큰길에서 대문까지의 골목길’이라고³⁰⁾ 할 수 있다.

이 밖에 ‘올레’는 제주 지명에도 흔적을 남기고 있다. 그런데 지명에서의 ‘올레’도 의미상으로 특별한 것은 없지만 형태상으로는 조금 특이한 사실이 발견된다.

(16)가. 올레-왓(우영-팻): 백개 중마을 685번지의 밭을 일컫는다. ‘올레’는 거릿길 쪽에서 집으로 들어오는 좁은 골목 비슷한 길, 혹은 집으로 들어오는 대문 따위를 뜻하는 제주도방언이다. ‘올레왓’ 서쪽에 ‘우영팻’이 있다. ‘우영팻’은 집 뒤에 있는 텃밭의 제주도 방언이다.³¹⁾

나. 오래물: 도두리 북쪽, 올레(거리와 문 사이에 있는 좁은 길) 앞에 있는 우물이어서 ‘오래물’이라고 한다고 하지만, ‘오래물’은 도두 포구 상류에서 솟는 샘물인데 오방에서 솟는다고 해서 ‘오래물’(午來泉)이라고도 했다. 중동 마을 중앙 오거리 바다쪽에 있는 샘물이다. 증보탐라지에 우래천(牛來泉)은 제주읍 도두리에 있다. 샘물 맛이 달고 수맥은 ‘오방’(午方)으로부터 솟는다고 하여 ‘오래물’이라 이름하였다고 하였다.³²⁾

위의 예에서 ‘올레왓’과 ‘오래물’이 확인되는데, ‘올레왓’은 ‘올레’와 ‘왓[田]의

29) 물론 이 어형은 『훈몽자회』에서 언급한 ‘오래문’에 대응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30) 오구라 신페이(2009)에서는 제주방언의 ‘올레’에 ‘이웃’의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지만 현재 이 방언에서는 ‘올레’가 ‘이웃[隣]’의 의미로 쓰이는 것을 찾기는 어렵다.

31) 제주시·제주문화원, 『제주시 옛 지명』, 1996, 402면.

32) 위의 책, 292면.

결합형이다. 선행 요소 ‘올레’ 다음에 ‘밭’이 ‘왓’으로 나타나는 경우이다. 이때의 ‘올레’ 역시 큰길에서 집 앞까지의 거리를 나타내고, 그 주위에 있는 밭을 ‘올레왓’으로 명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6나)의 ‘오래물’은 두 가지 해석을 가지고 있다. ‘올레’ 앞에 있는 우물이라는 것과 ‘우래물’에서 유래했기 때문에 ‘오래물’로 보는 설이다. 두 가지 가운데 어느 것이 정확한 것인가는 설명하기 어렵지만 만약 ‘오래물’이 ‘올레’에 있는 ‘물’이라는 의미에서 명명된 것이라면 제주 지역에서도 이전의 어느 시기에 ‘올레’의 앞선 형태인 ‘오래’가 존재했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제주 방언에서는 ‘올렛길’, 또는 ‘올레질’ 보다는 ‘올레’라는 형태가 좀 더 일반적이다. 다음은 제주어 구술 자료집에서의 ‘올레’의 발화 양상이다.

(17)가. 이사갈 때는 저 옛날은 이제 그 집이 갈 때 올레에 강 불살라근영이 가곡, 집 상 가민 경허여.(이사 갈 때는 저 옛날은 이제 그 집에 갈 때 ‘올레’에 가서 불살라서 가고, 집 사서 가면 그렇게 해.)³³⁾

나. 이문간은 올레레 가는디 이문 짓주게. 이문 짓으면 사람 나가는 디 잇곡 혼펜이 또 소 질르는 막 잇곡.(문간채는 ‘올레’로 가는데 대문 짓지. 대문 지으면 사람 나가는 데 잇고 한편에 또 기르는 막 잇고.)³⁴⁾

다. 이딧 하르방은 옛날에 막 높은 사름헤여난이 므을 일 보는 사름이 저 올레서 아뢰웁니다 허민 이거 이 집이 살아난 하르방인디 올레서 막 올러도 대답 아니헤여.(여기 할아버지는 옛날 막 높은 사람했었어서 마을 일 보는 사람이 저 ‘올레’서 아뢰웁니다 하면 이거 이 집에 살았던 할아버진데 ‘올레’서 막 외쳐도 대답 안 해.)³⁵⁾

라. 계난 므밀쌀 허벽에 행 질영 뉘뵙 먹을 거 엇이민. 그 므밀쌀만 줍아당 먹으멍 올레 베끗디 나가지 안행 놀안.(그러니까 메밀쌀 허벽에 해서 길에서 놔두고 먹을 것 없으면, 그 메밀쌀만 집어다가 먹으면서 ‘올레’ 밖에 나가지 않아서 놀았어.)- 성산읍 삼달리 김해생(1922년생, 여)³⁶⁾

33) 제주특별자치도·제주학연구원, 「2017년 제주어구술자료집2-조천읍 선흘리」, 2017, 358면.
34) 제주특별자치도·제주학연구원, 「2016 제주어구술채록보고서33-대정읍 인성리」, 2016, 189-190면.
35) 위의 책, 190면.
36) 제주특별자치도·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 「2015 제주어구술채록보고서16-성산읍 삼달리」, 2015, 17면.

마. 새각시도 이젠 마당ㄱ장, 저 올레ㄱ장 저 우실, 전송해 땡 올 거 아니라
게.(새색시도 이젠 마당까지 저 올레까지 저 상객을, 전송해 두고 올 거
아니냐.) - 제주시 용강동 권상수(1933년생, 남)³⁷⁾

위의 예에서 공통적으로 ‘올레’를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올레’는 ‘집안의 바깥문
에서 큰길까지의 거리’라는 공통점을 갖는다. (17나)의 “이문간은 올레레 가는디 이
문 짓주게.”라는 발화에서 ‘이문간’(문간채) 밖에 ‘이문’(대문)이 있고, 그 밖으로
‘올레’가 존재하는 제주도 가옥 구조를 볼 수 있다. (17마)의 ‘올레’ 역시 ‘집 밖의 거
리’라는 의미로 해석할 때 좀 더 자연스럽다. 이는 제주방언에서는 ‘올레’가 대체로
‘집 밖의 골목길’이라는 의미로 쓰이고, ‘올렛길’ 등과 같은 형태는 그리 일반적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제주방언에서 ‘올렛문’도 존재하기는 한다. 이 형태는 중세국어의 ‘오래문’
과 관련이 있는데, 다음과 같은 발화에서 확인할 수 있다.³⁸⁾

(18) @계문 문 들어오는 입구에, 대문 이신디예, 이 집이 들어오젠 허민 저디 올
레에 문 이시민 그 문은 이문간이엔 허여?(그러면 문 들어오는 입구에, 대문 있는데
요, 이 집에 들어오려고 하면 저기 ‘올레’에 문 있으면 그 문은 대문이라고 해?)
응, 이문간. 올레, 올렛문이엔도 허고 이문간이엔도 허고.(응, 대문. ‘올레’, ‘올
렛문’이라고도 하고 대문이라고도 하고.)³⁹⁾

위는 제주어 구술 자료집에서 나타난 예인데, 표준어의 ‘대문’에 해당하는 제주
방언은 ‘이문간’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한 그것을 ‘올렛문’이라고 부르기도 한다는
것이다. 즉, 가옥 구조로는 가장 바깥에 있는 대문인데, 이것은 올레로 연결되는 문
이다. 그런데 ‘올렛문’은 『훈몽자회』에서 언급한 ‘오래문’과 대응된다. 즉, ‘오래’가
본래 ‘문’ 즉, ‘외문’을 의미하였는데, 여기에 동일한 의미인 ‘문’이 결합한 것이다.

37) 김미진, 「제주시 용강동 권상수 할아버지 생애 구술-각신 이끄곡 서방은 갈곡」, 제주대학교 국어
문화원, 2009, 51면.

38) 예문에서 @는 조사자의 질문을, #은 제보자의 대답을 나타낸다.

39) 제주특별자치도·제주학연구센터, 「2017년도 제주어구술자료집2 - 조천읍 선흘리」, 2017, 239
면.

아마도 제주방언의 ‘올렛문’ 역시 기원적으로는 동의중복형일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제주방언의 ‘올레’는 기본적으로 ‘집안의 바깥문에서 큰길까지의 거리’를 의미하지만 점차 의미가 불투명해져 ‘집안의 바깥문에서 큰길까지의 거리 그 주변이나 그 일대’를 의미하기도 한다.

(19) 아이고, 아이고. 이젠 뭐 아기 나지카부텐도 안헌디 나면은 우린. 우리 시고모님이 올레에 살아났져.(아이고, 아이고. 이젠 뭐 아기 낳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안 했는데 낳으면 우린. 우리 시고모님이 올레에 살았었어.)⁴⁰⁾

위의 예 가운데 “시고모님이 올레에 살아났져.(살았었어)”에서 ‘올레’를 ‘골목길’로 보아도 문제가 없지만 오히려 올레를 중심으로 그 ‘주변’, ‘일대’로 보는 것이 좀 더 자연스럽다. 아울러 ‘올레 강 보라(올레에 가 보라)’, ‘올레에서 놀라’ 등도 올레를 중심으로 한 주변이나 일대의 의미로 보는 것이 좀 더 합리적이다.⁴¹⁾ 이렇게 ‘올레’가 ‘집안의 바깥문에서 큰길까지의 거리’뿐만 아니라 그 ‘주변’이나 ‘일대’로 의미가 확대되는 것은 일차적으로 ‘올레’의 의미가 모호하기 때문이다. 즉, ‘올레’의 지시 대상이 분명하지 않고, 아울러 의미의 경계가 모호하기 때문에 의미의 확대가 일어났다고 할 수 있다.

IV. ‘오래’의 의미 변화

앞 절에서 중세국어의 ‘오래’의 의미를 고찰해 보고 아울러 현대국어의 방언에 남아 있는 ‘오래’의 형태와 의미를 살펴보았다. 중세국어의 ‘오래’에는 이미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그것은 ‘문’의 의미와 ‘거리’[巷]의 의미였다. 그런데 중세국어 이후에는 좀처럼 ‘오래’의 형태가 확인되지 않았다. 현대국어의 방언에도 ‘오래’

40) 위의 책, 342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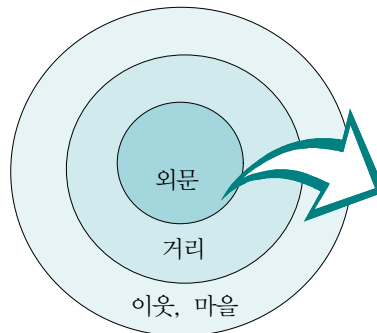
41) 이러한 지적은 오창명(2014)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오창명, 제주방언 어휘론 연구의 현황과 과제, 『제주방언 연구의 어제와 내일』, 제주발전연구원, 2014, 336면.

가 확인되는 지역은 함경도 지역과 평안도 지역, 그리고 황해도 일부 지역이었다. 아울러 제주 지역에 ‘올레’라는 형태로 남아 있다. 대체로 중앙방언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에 그 형태가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의미 역시 ‘오래’가 ‘문’이라는 의미보다는 ‘이웃’이나 ‘마을’ 또는 ‘종중’ 등 파생된 의미로 변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을 간단히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3. ‘오래’의 의미 변화

형태	기본 의미	일차적 의미 파생	이차적 의미 파생
오래	문, 외문	문 주위의 거리	이웃, 마을, 종중

위의 표에서와 같이 ‘오래’는 본래 ‘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천자문』류에서 지속적으로 ‘門’의 훈이 ‘오래’로 되어 있다는 사실이 이러한 사정을 말해 준다. 그러나 중세국어에서 ‘오래’와 ‘문’의 의미 관계가 약화되면서, ‘오래’에는 ‘거리’ [巷]라는 의미도 새롭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중세국어에 이미 ‘오래’에 ‘거리’라는 의미가 확인된다. 그리고 나아가 함경도 지역이나 평안도 지역에서는 ‘오래’가 ‘이웃’이나 ‘마을’, ‘종중’ 등으로 의미가 변화된 것으로 나타난다. 이것은 ‘오래’의 또 다른 의미 확대를 볼 수 있다. 즉, 중심 의미인 ‘문’이라는 의미에서 점차 주변의 다른 의미로 확대된 것이다. 이것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그림-2 오래 의미 변화>

한편, 제주방언에서는 ‘오래’가 ‘올래’ 그리고 ‘올레’로 형태 변화를 겪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제주방언에서는 ‘올레’가 문 주위의 거리, 즉 문 밖에서 큰 길까지의 거리의 의미로 사용된다. 이는 중세국어에서도 ‘오래’가 ‘거리’라는 의미로 나타나던 것인데, 일차적 의미 파생의 단계가 제주방언에 그대로 남아 있다고 할 수 있다. 아울러, 제주방언에서는 미묘하지만 ‘올레’에 ‘올레의 주변이나 그 일대’라는 의미가 나타나기도 한다.

이 과정에서 ‘오래’의 의미 변화 과정을 추정해 볼 수 있다. 중세국어 당시에도 ‘오래’는 이미 ‘門’과의 의미적 유연성이 사라져 흔히 쓰이던 단어가 아니었다. 즉, 『훈몽자회』의 설명을 보면 ‘밖에 있는 문’을 ‘오래문’이라고 한다고 하였다. ‘오래’와 ‘문’의 결합 형태가 쓰이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시기에 『천자문』 등의 한자 자석류에서는 ‘門’의 훈을 ‘오래’라고 하였다. 즉 ‘오래’는 본래 ‘밖에 있는 문’의 의미였기 때문에 ‘문’의 의미에는 ‘오래’만으로 충분했지만, 이미 16세기에 ‘오래’가 세력을 잃어 ‘오래’와 ‘문’의 의미적 유연성이 사라졌다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오래’에 동일 의미인 ‘문’을 덧붙여 ‘오래문’과 같은 동의중복 형태가 쓰였음을 볼 수 있다. 동의중복 형태가 생겼다는 것은 이미 그 당시에 언중들 사이에서는 ‘오래’와 ‘門’의 유연성이 사라졌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또, 중세국어에 이미 ‘오래’는 단독형으로 나타나는 예가 거의 없었던 점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오래’는 한자의 훈에서나 확인되고 다른 문헌 자료에서는 ‘오래뜰’이라든지 ‘문오래’ 등과 같이 합성 형식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단독으로 쓰이지 않고 합성 형식에서나 나타난다는 것은 이 어형이 이미 세력을 잃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오래’와 ‘문’의 유연성이 사라지자 ‘오래’에는 새로운 의미가 생기게 된다. 즉, 단어의 명칭과 의미 사이에 유연성을 가지고 있다가 본래의 의미를 떠올릴 수 없을 정도로 명칭이 변하면 의미도 따라서 변하게 되는 결과이다.⁴²⁾ 그러므로 중세국어에 이미 ‘오래’에는 본래 의미인 ‘문’이라는 의미 외에도 이것에서 파생된 ‘거리’[巷]의 의미까지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42) 윤희현, 『국어 의미론 강의』, 역락, 2013, 180면.

이 밖에 ‘오래’와 ‘문’의 유연성이 사라지고, 의미의 범위가 대치되거나 확대되기도 한다. 이럴 경우 의미 변화는 대체로 구체적인 의미에서 추상적인 의미로 변화할 수 있다. 그러므로 즉, ‘오래’는 ‘문’이라는 구체물에서 ‘거리’로, 또는 ‘이웃’이나 ‘중중’과 같은 추상적인 의미로 대치되거나 확대되었다.

이렇게 ‘오래’와 ‘문’의 의미적 유연성이 약화된 이유는 바로 한자어인 ‘문’의 등장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즉, 고유어로 존재하던 ‘오래’가 새롭게 유입된 한자어 ‘문’에 그 세력을 잃은 것이다. 특히 한자어 ‘문’은 일음절이라는 특징을 바탕으로 고유어 ‘오래’를 밀어내고 새롭게 자리 잡았다.⁴³⁾ 즉, ‘오래’에 대한 새로운 개신어 ‘문’이 중부방언에서 나타나자, 기존에 있었던 ‘오래’는 중부방언에서는 거의 소멸되고, 중부방언에서 거리가 먼 제주방언이나 함경도 방언 등에서 그 형태가 남게 되었다. 다만, 잔재 지역에 남아 있는 ‘오래’도 본래의 의미에서 파생된 ‘거리’나 ‘이웃’, ‘마을’, ‘중중’으로 변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V. 결론

본고는 제주 방언형인 ‘올레’와 관련된 어휘의 형태 변화와 의미 변화를 논의하였다. ‘올레’와 관련된 이전 시기의 형태를 찾아보고 이 형태가 ‘올레’를 비롯하여 방언형으로 어떻게 실현되는지, 형태와 의미 변화 차원에서 살펴본 것이다. 본론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제주방언 ‘올레’에 대응하는 중세국어 형태는 ‘오래’이다. ‘오래’는 『천자문』을 비롯한 여러 문헌에 나타난다. 중세국어 ‘오래’는 [평거]의 성조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오래’의 본래 의미는 ‘문’이다. 특히 밖에 있는 문[外門]을 뜻하였다. 아울러 중세국어에서 당시에 이미 ‘오래’와 ‘문’의 의미적 유연성이 약화되었다. 이에 따라

43) 후기 중세국어 시기에 한자어가 순수 국어 단어를 대치한 예는 다수 찾아볼 수 있다. ‘온’, ‘즈믄’, ‘미르’, ‘슈릅’ 등은 ‘백’, ‘천’, ‘용’, ‘우산’ 등으로 빠르게 대치되었다. 이에 대해서는 이기문 (1998)을 참고할 수 있다. 이기문, 『국어사개설(신정)』, 태학사, 1998, 191쪽.

‘오래’는 또 다른 의미인 ‘거리’[巷]의 의미도 갖게 되었다. 근대국어 자료에서는 ‘오래’의 형태가 좀처럼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문집 자료에 그 흔적이 남아 있다.

2. 현대국어에는 ‘오래’가 사전에 올라 있지만 일상적으로는 쓰이지 않는다. ‘오래’가 확인되는 지역은 함경도와 평북 등 북한 지역이고, 아울러 제주방언에 ‘올레’로 남아 있다. 함북 방언에서 ‘오래’는 ‘동네’나 ‘마을’, ‘이웃’의 의미를 보인다.

3. 제주방언의 ‘올레’는 ‘오래’에서 ‘ㄹ’이 첨가된 형태이다. 그리고 ‘올레’가 ‘올레’로 변화한 이유는 이 지역에서 ‘ㄹ’과 ‘ㄱ’이 구별되지 않고 ‘ㄱ’로 발음하는 경향이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올레’는 ‘큰길에서 대문까지의 골목길’이라는 의미이다. 아울러 ‘올레’의 의미의 모호성 때문에 ‘올레’에는 ‘올레 주변이나 일대’의 의미를 갖기도 한다.

4. ‘오래’는 기본 의미가 ‘문’, 또는 ‘외문’에서, 일차적으로 ‘거리’, 나아가 ‘이웃’이나 ‘마을’, ‘종중’ 등으로 점차 파생되었다. 중세국어에 이미 ‘오래’와 ‘문’의 유연성은 사라지게 되었는데, ‘오래문’과 같은 동의중복형이나 ‘오래뜰’과 같은 합성 형식으로밖에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의미도 구체적인 의미에서 추상적인 의미로 확대되었다. 이렇게 ‘오래’와 ‘문’의 유연성이 사라진 결정적인 이유는 한자어 ‘문’의 영향이다. 일음절 한자어라는 특징은 고유어 ‘오래’가 세력을 잃게 되는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참고문헌〉

- 고재환, 『제주어개론(상)』, 보고사, 2011.
곽충구, 「국어사 연구와 국어 방언」, 『이기문교수정년퇴임기념논총』, 신구문화사, 1996, 45-71.
권덕규, 「버리다 만 산고」, 『한글』 7-2, 한글학회, 1937, 554-557.
김광해, 『국어 어휘론 개설』, 집문당, 1993.
김미진, 「제주시 용강동 권상수 할아버지 생애 구술-각신 이끄곡 서방은 갈곡」, 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 2009.

- 김민수 편, 『우리말 語源辭典』, 태학사, 1997.
- 김영배, 『평안방언연구(자료편)』, 태학사, 1997.
- 김이협, 『평북방언사전』,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1.
- 김인기 편, 『강릉방언총람』, 한림출판사, 2004.
- 김태균 편, 『함북방언사전』, 경기대학교 출판국, 1986.
- 박용후, 『제주방언연구(자료편)』,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88.
- 배영환, 「‘똥’[穿]의 형성과 방언 분화」, 『어문논집』 56, 중앙어문학회, 2013, 63-91.
- 배영환, 「제주방언 ‘오분자기’의 어휘사」, 『국어문학』 63, 국어문학회, 2016, 39-69.
- 석주명, 『제주도 방언집』, 서울신문사출판부, 1947.
- 송상조, 『제주말 큰사전』, 한국문화사, 2007.
- 신정일, 『새로 쓰는 택리지』, 다음생각, 2012.
- 오창명, 「제주방언 어휘론 연구의 현황과 과제」, 『제주방언 연구의 어제와 내일』, 제주발전연구원, 2014, 315-346.
- 윤평현, 『국어의미론 강의』, 역락, 2013.
- 이기문, 국어 어휘사 연구, 동아출판사, 1991.
- 이기문, 『국어사개설(신정)』, 태학사, 1998.
- 이병근, 「질경이(車前草)의 어휘사」, 『이기문교수정년퇴임기념논총』, 신구문화사, 1996, 이병근(2004)에 재수록.
- 이병근, 『어휘사』, 태학사, 2004.
- 이용규 외, 「제주 올래와 올랫담의 유형적 특성에 관한 연구-무근성 지역을 중심으로-」, 『한국농촌건축학회논문집』 제19권3호(통권66호), 한국농촌건축학회, 2017, 9-16.
- 이태영, 「전라방언 ‘겁나계’의 어휘사」, 『한국언어문학』 83, 한국언어문학회, 2012, 69-90.
- 제주시·제주문화원, 『제주시 옛 지명』, 1996.
- 제주특별자치도 편, 『개정 증보 제주어사전』, 제주특별자치도, 2009.
- 제주특별자치도·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 「2015 제주어구술채록보고서 16-성산읍

- 삼달1리, 2015.
- 제주특별자치도·제주학연구센터, 「2016 제주어구술채록보고서33-대정읍 인성리」, 2016.
- 제주특별자치도·제주학연구센터, 「2017년도 제주어구술자료집2-조천읍 선흘리」, 2017.
- 조재현 옮김, 『계축일기』, 서해문집, 2003, 178쪽.
- 조항범, 「돼지의 어휘사」, 『한국어 의미학』 11, 한국어 의미학회, 2002, 13-47.
- 최학근, 『증보 한국어방언사전』, 명문당, 1990.
- 현평효, 『제주도방언연구: 자료편』, 이우출판사, 1985.
- 황문환 외, 『천자문(장서각 소장 왕실 천자문 역해)』,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2016.
- 황대화, 『1960년대 육진방언 연구(자료편)』, 역락, 2011.
- 황선엽, 「‘강아지풀(莠)’의 어휘사」, 『한국어학』 45, 한국어학회, 2009, 421-446.
- 오구라 신페이, 『조선어 방언사전』, 한국문화사, 2009.

<Abstract>

Lexical History of Jeju Dialect ‘Olle’

Bae Younghwa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iscuss the change in the form and meaning of vocabulary related to Jeju dialect 'Olle'. The medieval Korean language form corresponding to Jeju dialect 'Olle' is 'Orae'. 'Orae' appears in various literature including Cheonjamun. The original meaning of 'Orae', medieval Korean language, is 'Mun(Gate)', especially 外門(exterior gate). In addition, the meaningful motivation of 'Orae' and 'Mun(Gate)' had already weakened in the medieval Korean language, and 'Orae' had another meaning of '巷[Street]'. In modern Korean language data, the form of 'Orae' is rarely found. In the modern Korean language, 'Orae' is found in North Korea including Hamgyeong Province and Pyeongbuk, and it remains 'Olle' in Jeju dialect. 'Orae', in the dialect of North Hamgyeong Province means 'neighborhood', 'village' or 'neighbor'. 'Olle' in Jeju dialect is a form of 'Orae' inserted with 'ㄹ'. And the change of 'Orae' to 'Olle' reflects the fact that 'ㄹ' and 'ㄹ' are not distinguished in this area. 'Olle' means 'an alleyway from the main road to the main gate'. In addition, 'Olle' has the meaning of 'around Olle or its vicinity'. The basic meaning of 'Orae' in the medieval Korean language gradually derives from 'Mun(Gate)' or '外門 (Exterior Gate)' to firstly 'Street', then 'Neighbor', 'Village', and 'Clan'. The reason why 'Orae' in the medieval Korean language has only appeared in a tautology or synthesis form such as 'Oraemun' is that it has already lost the flexibility of 'Orae' and 'Mun'. And the reason for the missing flexibility of 'Orae' and 'Mun' is due to the influence of Chinese character 'Mun'. 'Mun' featured by a one-syllable character played a crucial factor for Native Korean word 'Orae' to lose power.

Keywords : Olle, Orae, Jeju dialect, Meaning change, The dialect of North Hamgyeong Province, Semantic Derivation

제주방언 ‘올레’의 어휘사

논문접수일 : 2018년 08월 01일

심사(수정)일 : 2018년 08월 04일

게재확정일 : 2018년 08월 15일

K C I

КСІ